

통신 시대, 위기 맞은 우리 말과 글

어법에 맞지 않는 우리 말들 범람... 올바른 언어문자 생활 익혀야

최용기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한 나라의 문화를 이루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뿌리를 찾는다면 당연히 언어를 손꼽을 수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운명에도 직결됨은 물론, 그 민족의 의식과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고 가꾸고 다듬는 까닭도 언어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에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자,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말하거나 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말은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리만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음운조직과 음운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글은 질서정연한 논리와 법칙에 따라 표기되는 글자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컴퓨터 통신과 영상매체의 시대를 맞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문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말을 만들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상의 문자는 컴퓨터 통신이 대중매체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어의 '문법 파괴'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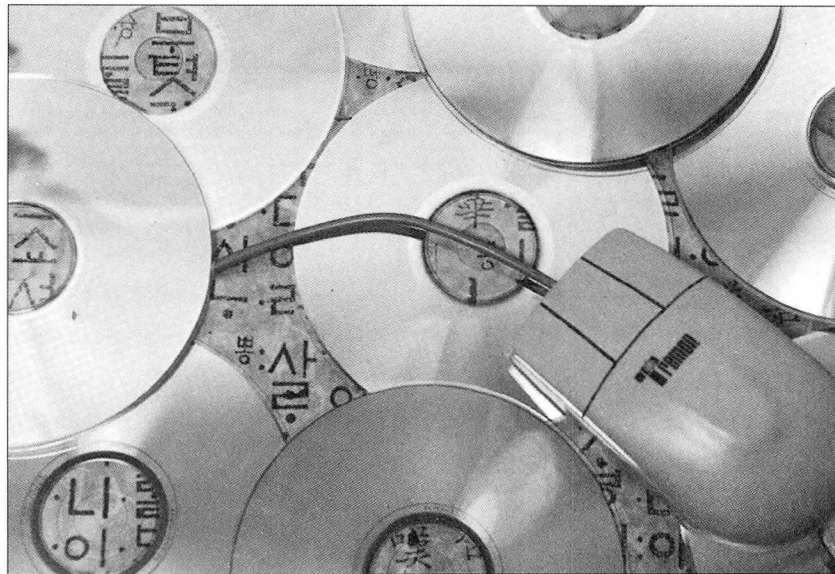
컴퓨터 통신 대화방에 들어가면 일반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의 '문법파괴' 현상

"안나세요(안녕하세요), 안농(안녕), 방가(반가워요), 설사라고(서울살아요), 글쿠나(그렇구나), 방가 꼬옥(반가워요, 꼭 안아줘요), ...그럼 20000(그럼 이만, 담에 바여(다음에 봐요))" 등 컴퓨터 통신의 문자는 말을 극도로 줄이거나 소리나는 대로 쓰고, 감탄사와 의성·의태어를 동원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어 문법과는 관계없이 생각나는 대로 읽거나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의 상용화는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를 마구 양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인터넷 관련용어만 보더라도, "넷맹, 웨버진(Weberzine), 웹지엄(Webseum), 서핑(Surfing) ..." 등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설명을 덧붙이면 '넷맹'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까막눈을 가리키는 '캠맹'에다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인터넷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웨버진'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컴퓨터 통신용어와 영상매체의 언어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인 월드 와이드 '웹'과 잡지를 뜻하는 '매거진'을 합친 것으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네트워크를 타고 기사를 전달하는 인터넷 잡지 서비스를 말하고, '웹지엄'은 '웹'과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을 합성한 것으로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한 '루브르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서핑'은 '파도타기'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다는 뜻이다.

이런 신조어들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축

약형이거나 단어와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 형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문법적인 말과 글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매우 혼탁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말과 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영상매체 번역물의 우리말 왜곡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통신의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의 번역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화 제목, 비디오와 TV 자막, 번역도서 등에 나타나는 문자와 표기는 무슨 말뜻인지 알 수 없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말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상영되었던 영화제목, "나쁜 여자들(Bad Girls), 업 클로즈 앤 퍼스널(Up Close and Personal), 투 이프 바이 씨(Two if by Sea), 본투킬, 투맨, 코르셋" 등 제목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설명을 덧붙이면 '나쁜 여자들'은 창녀라는 뜻의 'Bad Girls'를 번역한 말이고, '업 클로즈 앤 퍼스널(Up Close and Personal)'은 '밀착취재'라는 방송전 문용어이며, '투 이프 바이 씨(Two if by Sea)'는 롱펠로우 시구에서 따왔다는 군사 용어로 바다로 침투할 때 불을 두번 깜빡거리라는 뜻이 있다. 그 밖에 '본투킬, 투맨, 코르셋' 등은 한국영화인데, 영어제목 따온 것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자료

해외 각국의 언어정책

외래어 추방운동 등 다양하게 정책수립

언어정책은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 방책"으로 각국 언어의 쓰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세계의 언어는 그 역사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한마디로 '무정책의 언어정책'을 편다. 표기법과 철자법의 통일은 한 기관에서 정해 무차별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일반에 보급된 형식을 기본으로 삼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첨가하여 사설출판사의

사전으로 편찬해 보급함으로써 전국적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철자법보다는 말하기와 듣기를 강조해 극도로 불합리한 표기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매우 세분화되고 과학적이다. 1967년 국가 기관으로 창립된 '국제프랑스어센터'는 사전출판과 제반 분야의 전문어휘를 관리·담당하고 철자법의 문제를 관리하고, 1980년 '프랑스어 어휘연맹'이라는 정책기구를 발족해 매년 1만여개씩 늘어나는 프랑스 신조

어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그 유명한 '자국어 화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발효중인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 외래어 추방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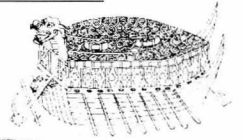
일본은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표준어 문제·용자표기 문제·문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부정책을 실현해 왔다. 일본의 국어문제는 거의 문자 문제로 한정되어 있는데, 언어정책은 문부대신이 자문을 구하면 '국어심의위원회'가 연구·보고하고 이를 내각고시 등의 훈령으로 공표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부처의 조치가 이어져 시달된다. 이런 단계는 언론을 통해 계속 공표되어 국민 여론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게 되어 있다. ◆

가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통이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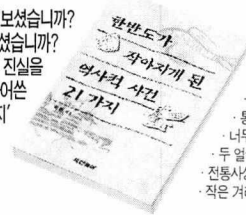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런 가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쫓던 조선의 금서목록
- 적은 거래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술술 읽으면 쑥스러우게
풀어낸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통이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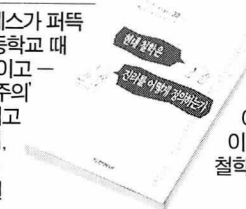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경태 지음 / 6,800원

컴퓨터 통신상의 국어문법

파괴현상은 영상매체의

번역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위기를 맞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일상언어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언어는 한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영어문장을 옮겨 놓았거나 앞뒤 단어를 없애버린 경우다. "에브리원 세즈 아이 러브 유(Everyone Says I Love You), 로미오 이즈 블리딩(Romeo is Bleeding), 애딕티드 러브(Addicted to Love)"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외래어 표기법이나 어법에도 맞지 않지만, 도저히 한국어 영화제목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한국어를 영어의 부속물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지의 의심스럽다.

외국영화를 번역한 비디오 자막은 오자와 사투리 투성이고, 저속한 말이나 비속어, 부적절한 문장이나 외국어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흉내낸 것도 많다. "꺼어(꺼어), 안되요(안돼요), 제길할(제기랄), 발자욱(발자국), 꿈을 꺾나(꿈을 꾸나)" 등의 틀린 사례는 <분노의 폭발> <패트리어트> <디코이> <엠마 뉴엘>에서 찾을 수 있고, <라스트 맨>은 "옷을 잡고"를 "옷을 찾고"로, <마지막 전사>는 "공연히 적을"을 "공연한 적을"로 표기했다. 심지어 "무의식으로의 몰입, 부탁하였었다, 보도되어졌던 신문" 등은 번역문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오류는 TV자막도 예외는 아니다.

"취 기피제 추출 성공, 범람해진 낙동강,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 배가 침몰한 소식 신고, 기암절벽과 해양생물의 경관 수려" 등 우리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도대체 국어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라면 국어의 왜곡현상은 이

제 심각할 지경이다.

언어는 문화 건강성의 지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광복 후 미군정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말과 글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런 현상들은 우리 말과 글을 우습게 생각하고 국어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한민족이고, 우리는 '찰스, 에이미'가 아닌 '철수, 영미'일 수밖에 없다. 또한 매일 주고받는 인사말이 '헬로'나 '하이'일 수는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말과 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고, 우리 말과 글의 환경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

컴퓨터 통신용어와 영상매체의 언어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를 바로잡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프랑스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품위있고 아름다운 언어가 된 것은 국민과 국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듬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위기를 맞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일상언어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이를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의 표준어나 우리글의 맞춤법은 무척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언어문자 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의 규범은 당연히 익혀야 한다.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아름다운 국어는 그 나라가 얼마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